
외래어표기법의 된소리 표기에 대하여

박창원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서론

본고는 <외래어표기법>의 여러 조항 중 된소리 표기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해 보고, 된소리 표기를 외래어표기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첫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표기법의 규정 중 된소리와 관련된 항목들을 부분적으로 재해석하여 본 논의의 발판을 만든다.

둘째, 외래어표기법과 관련하여 생기는 많은 오해와 문제 제기는 음운과 문자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음운과 그것의 표기는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표기법과 발음의 관계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 문제 역시 표기된 문자는 다양한 발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고유어의 표기가 그러한데 외래어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외래어의 표기를 실질적으로 어떤 원칙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2. 규정과 해설

2.1. 규정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표기법은 1986년 언중의 외래어 사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전체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은 '표기의 기본 원칙'을 언명한 것이고, 제2장에서는 '표기 일람표'를 제시하고 있고, 제3장에서는 '표기 세칙'을, 제4장에서는 '인명·지명 표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에 제시하고 있는 표기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이 다섯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제3항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제4항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항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이 조항들은 곳곳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한 사항들도 많지만, 제정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또 언어의 역사적인 변화를 감안한다면, 현재도 충분히 실효성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항들 중 된소리의 표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제4항이지만, 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도 된소리 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이에 관해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2.2. 국어의 현용 24자모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는 표현은 외래어를 표기하는 수단, 즉 문자의 유형과 사용 문자의 숫자 및 그 한계를 제시한 것이다. 문자의 종류는 ‘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자’인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한글 자모의 숫자는 ‘24자’이며, 그 24자 외에 다른 자모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자모’는 한글 이외의 다른 자모 즉 특수 기호나 종류가 다른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의 외래어표기는 24자모 외에 다른 자모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현용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어문규범의 전체적인 균형과 자모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지르게 되는 실수에 불과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현행 한글맞춤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한글맞춤법 제4항〉 한글 자모의 수는 스물네 자로 하고,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ㄱ(기역)	ㄴ(니은)	ㄷ(디귄)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ㅇ(이응)	ㅈ(지읒)	ㅊ(치읓)
ㅋ(키읔)	ㅌ(티읕)	ㅍ(피읖)	ㅎ(히읇)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ㅣ(이)

〈붙임1〉 위의 자모로써 적을 수 없는 소리는 두 개 이상의 자모를 어울려서 적되, 그 순서와 이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ㅍ	ㅑ	ㅓ	ㅕ	ㅗ	ㅛ
(쌍기역)	(쌍디근)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ㅙ(애)	ㅞ(애)	ㅚ(에)	ㅜ(예)	ㅛ(와)	ㅞ(왜)
ㅝ(외)	ㅞ(위)	ㅜ(웨)	ㅝ(위)	ㅝ(의)	

이에 의하면 제1항의 ‘자모’라는 개념은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의 문
자론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을 창제할
당시와 비교하면 자모의 음가가 바뀌어, 자모의 모양과 그 음가가 평행하
지 않아 현대적인 관점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즉 현대국어의 음운
체계와 평행하지 아니한 점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지만, 창제 당시의 상황
과 창제 당시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해 오던 관례를 존중하여, ‘문자소’의
개념¹⁾으로 자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모’를 음운론적이거
나 음성적인 단위가 아니라 ‘문자소’로서의 개념으로 사용하면 이 규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3. 외래어의 1음운 : 1기호

제2항의 ‘외래어의 1음운’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 우선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외래어에 대한 상위 개념이 국어라면 제2항은 ‘국어의 1
음운을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는 말과 통하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나 당연한 것이므로 규범으로서의 가치를 소멸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조
항에 나타나는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외래어로 수용되는 과정에 있는
언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²⁾ ‘기호’는 ‘자모’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외국어의 한 음운은 국어에서 외래어로 수용할 때 대체로 1음운으로

1) 여기서 ‘문자소’란 문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말한다.

2) 외국어와 외래어가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상의
문제는 항상 제기될 수 있다.

받아들이게 된다. 1음운이란 학술적인 성격을 지닌 음성·음운적인 표현을 한 것이고, 1기호란 한글 낱자모 혹은 두 개 이상의 자모를 뜻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결국 외국어의 한 음운은 하나의 한글 자모로 표기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규정의 ‘원칙적으로’라는 표현 속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간단한 한두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외래어의 1음운이 한글 자모의 2기호로 적히는 경우
- 둘째, 외래어의 2음운이 한글 자모의 1기호로 적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은 음운체계와 문자체계의 공유성과 차별성에 의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제기될 수 없다.³⁾

3. 음운과 문자 그리고 표기법과 발음

3.1. 음운과 문자

한 언어의 음운체계와 그것을 표기하는 문자체계가 같으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상황일 수 없겠지만,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보편적이다. 지구상의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언어를 표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문자(이들 문자는 로마 문자와 키릴 문자 둘 중의 하나이거나 이것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는 하나의 문자체계에서 출발하여 비슷한 문자체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것이 표기하고 있는 언어는 수백 수천 종류의 각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자의 수와 음운의 수가 일치하면서, 문자체계와 음운체계가

3) 상이한 두 체계의 차용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언어에서는 대단히 드문 일일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음운이란 끊임없이 변화해 가면서 생명을 부지하게 되는데, 이를 표기하는 문자는 음운의 변화를 맹종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음운과 문자의 괴리는 항상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하나의 문자가 여러 음가를 가지기도 하고, 여러 문자가 하나의 음가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많은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말을 적기 위한 한글도 창제 당시에는 문자와 음운이 거의 일대일로 대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역사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자의 원리에 의해 [다문자 : 1음가]가 되어 불일치하는 예

〈[w]를 표기하기 위해 ‘ㄱ’과 ‘ㄴ’이 사용되었다.〉

(예) 가, 내, 귀, 게

비교: 귀, 뇌(모음조화의 대립 짝)

나. 음운의 변화로 인해 불일치되는 예

〈단모음의 이중모음화로 [다문자 : 1음가]가 되었다.〉

(예) 외, 웨, 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로 ‘의’가 [1문자 : 다음가]로 되었다.〉

(예) 나의 살던 고향

의사, 의논, 의의, 이의, 어의,

본의, 논의, 상의, 결의, 숙의, 각의, 협의, 합의

〈‘에, 예’의 합류로 [다문자 : 1음가]가 되었다.〉

(예) 에, 애

외, 웨, 왜

예, 애

〈평음의 된소리화로 [1문자 : 다음가]가 되었다.〉

(예) 과사무실

효과, 성과 (비교: 결과, 빙과)

3.2. 표기법과 발음

한 언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겠는데, 한국어를 표기하는 한글에는 표기법이 명문으로 정해져 있다. 이 명문으로 정해 놓은 표기법의 규정 때문에 표기와 발음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표기법의 원리로 인해 문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예

한글맞춤법은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채택하고 있어 기저형을 밝혀 표기하므로 발음되지 않는 문자가 표기된다.

(예) 값도, 값이, 값만

나. 표기법의 약속 때문에 문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예

소리는 있으나, 표기하지 않은 맞춤법의 규정(표기법의 약속) 때문에 [무 문자 : 유음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 고유어 : 길가

한자어 : 치과, 내과, 이과

전세방

3.3. 정리

음운체계와 문자체계의 차이로 인해 음운과 문자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거나, 표기법 때문에 문자와 발음이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외래어의 표기에 있어서 동등한 상황을 인정하면 될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고유어의 표기에 다양한 경우를 인정하면서 외래어의 표기에서는 아주 엄격한 대응 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국어의 다음과 같은 단어들, 즉 단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음운 규칙이 적용되어 발음이 달라지는 ‘색연필, 목요일’ 그리고 ‘값없이’와 같은 단어를 생각하면서 외래어의 표기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4. 파열음의 표기와 발음

외국어를 수입하여 외래어로 수용하면서 우리 문자로 표기할 경우 당연히 표기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고, 그 원칙은 가능한 한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할 것이다. 표기의 원칙이나 규칙이 지켜져야 기본적인 사항이 대체로 보편타당해지고 수긍 가능해질 것이다. 원칙으로서 다른 규범, 혹은 표기의 기본 원칙과 보편성을 공유하면서 그 원칙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수긍 가능성은 사용자의 차원에서 한국어 사용자와 외국어 사용자 혹은 외국어를 배운 한국어 사용자 등이 고루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표기법은 그 언중들이 표기할 때 공유하고자 하는 약속이므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언어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고, 그 언어가 속한 언어권에서 두루 통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한국어 전체 표기법에서 원칙으로나 실제상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으로 외래어의 파열음(무성 파열음과 유성 파열음)을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약간의 의견을 개진하기로 한다.

4.1. 논거

파열음의 표기와 관련된 제4항의 규정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에서는 논쟁이 필요한 논거가 세 가지 제시될 수 있는데, 그것은 ‘파열음’, ‘된소리’, ‘원칙으로’이다.

가. 파열음

논의 대상을 파열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조음 방법상의 개념인 파열음의 상위 개념, 즉 ‘자음’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세 가지,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중 ‘파열음’에 한정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파열음과 파찰음을 포함하고 마찰음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파열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음’으로 해석해 주어야 한다. 파열음과 파찰음은 세 종류의 문자를 가지고 있고, 마찰음에는 두 종류의 문자밖에 없기 때문에 마찰음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된소리 표기 제외

여기에 표현된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된소리를 표기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이 규정에 의해 유성 : 무성의 음운 대립이 있는 파열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한글에 있는 된소리 표기 문자 즉 ‘쌍기역, 쌍디귤, 쌍지읒, 쌍비읍’ 등을 사용하지 않고, 외국어의 유성 파열음은 한글 자모의 평음 표기 문자(ㅂ, ㄷ, ㄱ, ㅈ)로 표기하고, 외국어의 무성 파열음은 한글 자모의 격음 표기 문자(ㅃ, ㄸ, ㄲ, ㅉ)로 적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음운 대응 관계를 설정한 이유는 첫째, 국어의 무성 파열음에 음운론적으로 가장 가까운 외래어의 무성음을 대응시킬 경우, 외래어의 유성음을 표기할 수 있는 대응 문자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 개개 음소의 대응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인데, 전체 체계를 고려해서 체계

적인 대응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표기의 효과성을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예외와 일관성

언어에 따라서는 음운론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하나의 무성 파열음이 음성적으로 국어의 격음에 가깝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국어의 된소리에 가깝게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영어와 이와 비슷한 언어의 어두 무성 파열음은 국어의 유기음과 비슷하게 조음되고, 불어의 어두 무성음은 국어의 된소리에 가깝게 조음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음운론적으로 동일하고 음성적으로 차이 나는 것을 언어에 따라 달리 표기할 경우, 즉 음성적인 변이음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을 취할 경우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음운적인 대응 관계를 고려하고 문자 대 문자의 대응 관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표기법으로 이해된다.

4.2. 표기의 가능성

외래어를 수용하여 표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것인데, 그 중 한 두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언어에 따라 음성적인 대응 관계를 최대한 살려 주는 방안
2. 원음의 주된 변이음에 대한 청각적 영상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
3. 원음의 음운론적 대응 관계를 고려하는 방안

첫 번째와 같이 할 경우 영어의 'paper, spring'의 한글 표기는 '페이퍼, 스프링'이 될 것이다. 한 언어의 음성적 변이음을, 수용하는 언어에서 음운론적으로 변별력 있게 표기한다면, 두 언어 사이의 음성적 유사성은 확

보할 수 있겠지만, 언어적인 현실이나 체계적인 대응과는 무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외래어표기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다.

두 번째와 같이 할 경우, 영어 등의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로 표기하고, 프랑스 등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프랑스의 무성 파열음의 실제 음가에 가깝게 한국어 표기를 할 수 있고, 영어의 무성 파열음에 가깝게 한국어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와 같이 할 경우, 외국어의 모든 무성 파열음은 국어의 거센소리나 된소리 중 하나로 표기하고, 유성 파열음은 국어의 평음으로 표기하여, 언어에 상관없이 표기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세 가능성 중 어떠한 표기법이 가장 적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몇 가지 기준을 설정해 보기로 하자.

4.3. 표기의 기준과 선택

가. 음운 대 음운의 체계적인 대응

외국어를 수입하여 외래어로 수용할 경우에는, 해당 언어의 원음에 가장 유사한 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가장 유사한 음이란 음성적인 차원에서 변이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음운체계의 비교 대조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유사한 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개개 음운의 유사성이 아니라, 해당 언어의 음운체계와 한국어의 음운체계를 고려하여 그 체계적인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음성적인 청각적 인상에 의해 개개 어휘를 수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표기법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나. 문자 대 문자의 체계적인 대응

표기의 기준으로 또 하나 생각할 문제는, 본래의 언어를 표기하던 문자

와 한국어가 표기하고자 하는 문자의 대응 관계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서구와 동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자체계는 기원적으로 그리스 문자에서 발전한 것으로 동일한 기원과 동일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표기하는 문자는 문자끼리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기하고자 하는 문자와 표기되는 문자는 상호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⁴⁾

다. 언어간 대응의 불균형

언어간 대응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어에서 된소리로 조음되기도 하는 것은 영어의 경우 유성음이고, 프랑스어의 경우 무성음, 중국어의 경우 탁음인데, 이러한 현상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언어의 체계적인 이해에 치명적인 오해가 초래될 수 있다. 세계의 범언어적인 문제를 한국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고자 할 경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간 결론>

음운 대 음운의 체계적인 대응을 고려할 때 외래어, 특히 인구어의 무성 파열음은 된소리나 거센소리 중 한 종류로 표기하고, 유성 파열음은 평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 표기법 전체의 균형

<중간 결론>에 이어 두 표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표기법 전체의 균형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문규범은 4가지이다. 이 4가지 어문규범은 각기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관련되는 부분은 서로 유기성을 가지고 있어

4) 문자의 종류 자체가 다를 경우 이 기준은 달리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야 한다. 외래어표기법과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은 로마자표기법이다. 로마자표기법에 의하면 국어의 유기음은 무성자(p, t, k 등)로 표기하고, 평음은 유성자(b, d, g 등)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두 규범이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로마자 무성 파열음에 해당되는 것을 국어의 유기음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마. 현재까지의 관용

외래어표기법을 만든 후 지금까지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표기 중 거센소리로 표기해 왔다. 현재까지 사용하던 관습을 존중하고, 거센소리 표기와 된소리 표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거센소리 표기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최종 결론>

음운 대 음운의 체계적인 대응, 문자 대 문자의 대응, 언어 전체의 균형, 표기법 전체의 균형 그리고 현재까지의 관행을 고려할 때, 외래어의 유성 파열음은 평음으로 표기하고 무성 파열음은 거센소리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남은 문제들

가. 현실 발음의 변화

영어 계통의 유성 파열음은 두 종류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 초기에 들어온 단어들 예를 들어 ‘game, dam, bus’ 등은 한국어 표기를 ‘게임, 댐, 버스’ 등의 평음으로 하고 있지만 된소리로 발음하고 있고, ‘google, demo, Obama’ 등의 한국어 표기를 ‘구글, 데모, 오바마’ 등의 평음으로 표기하고 평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전자의 표기를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나. 규정의 규범성

영어의 세계화와 역비례하게 영어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영어와 발음체계가 차이 나는 비영어권 전공자 그리고 비영어권 모국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는 된소리 표기를 아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특색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된소리 표기를 사용하여 된소리 표기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거의 사문화될 실정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숙제로 남는다.

〈일대일 대응의 예외〉

음운의 일대일 대응에는 예외처럼 보이는 것이 숏하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언어간의 발음 관습이 다르거나 음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두나 어말에서 자음군을 구성할 때와 그렇지 않은 다음의 경우

spring	strike	next	pink
sing	type	king	

‘s, k, t, p’ 등은 하나의 음소 ‘s, k, t, p’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모음이 있는 두 개의 음소 ‘스, 크, 트, 프’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외는 자음군 허용, 외파 미파적 발음 허용 등과 관련된 언어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음운의 일대일 대응에 대해 정당한 예외가 된다.

5. 결론에 대신하여

5.1. 외래어는 평음과 유기음으로 표기

한글의 표기는 발음 부호가 아니기 때문에 고유어나 외래어의 표기에

서 음운과 문자 그리고 발음이 1:1:1로 대응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외래어의 표기는 어원이 되는 언어와 한국어의 음운적인 체계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결과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외래어의 표기에서 체계적인 대응 관계를 고려하여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 관계에 있던 외래어는 평음과 유기음의 표기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5.2. 앞으로의 한두 문제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사항들을 몇 가지 적어 두고자 한다.

가. 한글 표기를 단순한 발음 부호의 표기로 보거나 유사한 인식에서 행해지는 논의들은, 한글과 한자와 대립시키면서 한글을 하나의 문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표음적 발음 부호로만 인식하는 대단히 옳지 못한 논의로 머물 수밖에 없다.

나. 외래어표기법은 외래어로 수용할 당시에만 적용되는 표기법으로 머물러야 한다. 한 언어가 외래어로 수용된 후에는 국어의 한 식구로서 고유어와 더불어 동일한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두어야 한다. 외래어라는 족쇄에 묶어 고정불변의 상태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다. 국어에 들어 온 외래어는 시간 차를 두고 다양하게 변화해 가기도 하므로, 이것을 보는 시각도 다양해져야 할 것이다.

사과의 미숙과 분량의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논지를 펴지 못한 부분은 다음의 기회로 넘기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2007), 『외래어·외국어 사용 및 순화어 수용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원.
- 김민수(1974), 『국어정책론』, 서울: 고려대 출판부.
- 김선철(2000), 「차용어 형성의 음운론적 과정에 대한 한 검토(1) - 영어 차용어를 중심으로 -」, 『한글』 250, p.43-68, 한글학회.
- 김선철(2008), 「외래어표기법의 한계와 극복 방안」.
- 김세중(1993), 「외래어표기 규범의 방향」, 『언어학』 15, p.61-75, 한국언어학회.
- 김수현(2003), 『외래어표기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완진(1991), 「한국에서의 외래어 문제」, 『새국어생활』 1(4), p.2-12, 국립국어연구원.
- 김정우(2002), 「번역의 관점에서 본 국어 외래어표기법」, 『국제어문』 25, p.1-28, 국제어문학회.
- 김하수(1999), 「한국어 외래어표기법의 문제점」, 『배달말』 25, p.247-259, 배달말학회.
- 문교부(1988), 「외래어표기법 해설」, 『국어어문규정집』, p.356-377,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민현식(1999), 『국어 정서법 연구』, 서울: 태학사.
- 박용찬(2007), 『외래어표기법』, 서울: 랜덤하우스.
- 박창원, 김수현(2004), 「외래어표기 양상의 변천」, 『새국어생활』 14-2, 국립국어연구원.
- 연규동(2006), 「짜장면을 위한 변명-외래어표기법을 다시 읽는다」, 『한국어학』 30, p.181-205, 한국어학회.
- 유만근(1996), 「외국어를 귀화시켜 국어다운 외래어로」, 『새국어생활』

- 6(4), p.105-121, 국립국어연구원.
- 이상억(1982), 「외래어표기법 문제의 종합 검토」, 『말』 7, p.57-75,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이응백(1987), 「외래어의 표기와 발음 문제」, 『국어교육』 59, p.249-254, 한국어교육학회.
- 이홍식(2001), 「외래어표기법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23, p.123-148, 성심여자대학교.
- 임동훈(1996), 「외래어표기법의 원리와 실제」, 『새국어생활』 6(4), p.41-61,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1996), 「외래어표기의 역사」, 『새국어생활』 6(4), p.3-40,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이현복 외 (공저),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p.197-225, 서울: 태학사.
- 정 국(2002), 「외래어표기법과 발음법」, 『외국어교육연구논집』 17, p.185-214, 한국외국어대학교.
- 정희원(2004), 「외래어의 개념과 범위」, 『새국어생활』 14(2), p.5-22, 국립국어연구원.